

# 93

## 도장작업자의 에폭시계 도료로 인한 백반증

성별	남	나이	57세	직종	도장공	직업관련성	높음
----	---	----	-----	----	-----	-------	----

### 1 개요

이○○(57세, 남)은 약 22년 동안 가전제품 및 전기부품 도장작업을 담당하던 중 1987년부터 손, 얼굴, 가슴 등에 백반증이 발생하여 간헐적으로 치료받았다. 1996년 7월 환경안전과로 작업부서 전환된 상태로 1998년 6월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.

### 2 작업환경

이○○의 백반증은 1987년부터 발생하였는데 당시 회사는 현 회사로 인수되어 당시에 사용한 도료의 종류나 성분을 정확히 알 수 없었다. 그러나 이○○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에서 에폭시계 도료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현재의 사업장에서도 에폭시계 도료를 사용하고 있었다. 회사측 자료에 의하면 1983년부터 에폭시계 도료를 사용하고 있다. 과거 연구원에서 에폭시계 도료를 분석하였을 때 백반증을 유발하는 페놀과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다.

### 3 의학적 소견

이○○는 1974년부터 가전제품과 계량기의 도장작업 중 에폭시계 도료를 비롯한 각종도료에 노출되었으며, 1987년부터 노출부위인 손을 중심으로 입 주위, 가슴, 배에 백반증이 발생하였다. 1992년에 백반증으로 진단받고 간헐적으로 치료하였으며



1996년 7월에 환경안전과로 작업전환되었으나 아직 백반증이 신체 여러 부위에 남아 있다.

#### 4 결 론

이○○에게 발생한 백반증은

- ① 입사하여 도장작업을 시작한 후 발생하였고,
- ② 도장작업에 사용된 도료에는 에폭시계 도료가 있었고
- ③ 에폭시계 도료에는 페놀 및 하이드로퀴논 성분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한 바 있

으므로

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.